지방자치 이슈&인물

김홍식 전 광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육은 인간을 가꾸는 종합서비스"

학교 '함께 그러나 다르게 성장하는 학습공간' 돼야
존중과 배려·배움 중심·맞춤형 진로교육 지원 주력

광주·전남 언론 최초로 TV를 출범시켜 융복합미디어를 선도하고 있는 광주매일신문이 창사 30주년을 맞아 광주시민의 교육 분야 발전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이어 오고 있는 김홍식 전 광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만나 특별 인터뷰를 진행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지난 2월말 퇴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개월이 지났다. 마음은 아직도 교육현장에 있는 것 같은데 참 세월이 빠르다. 여전히 퇴임 이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다. 틈틈이 광주교육과 기후환경에 대한 고민과 공부를 계속하면서 미루어 두었던 자료도 정리하고, 관련 분야 선후배들과 의견을 나누거나 지혜를 모으면서 바쁘게 활동하고 있다. 몇 가지 사회활동이 더해지면서 더욱 시간을 아끼며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는데 광주교육의 현실은?

-광주서석고에서 시작해 중·고 교사, 교감, 교장, 장학관, 교육장을 거치면서 약 37년 가까이 광주에서만 근무했다.

과거와 현재가 크게 비교되는 측면이 있다. 사실 지금은 좀 평가가 다르지만 광주는 교육도시로서 타지역 학생, 학부모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실력광주 교육을 배우기 위해 광주를 많이들 찾아왔는데 지금은 사정이 좀 다르다.

무엇보다 교사와 학교교육을 바라보는 학생, 학부모의 신뢰가 전과 같지 않다. 학교교육이 중요하긴 하지만 전적으로 학교와 교사에게만 의지하지 않으려는 면이 커진 것 같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또한 사립 비중이 큰 광주에서 사립학교와 교육청 간의 원활하지 못한 관계도 풀어야 할 숙제고, 아울러 비단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교권이 추락해서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도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교육행정에서 개선해야 할 비합리성을 꼽는다면?

-학교에서 근무할 당시에 "교육청이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하는 불만이 종종 있었다. 교육청이 존재하는 이유가 학교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측면에 앞서 학교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주된 일이어야 한다.

한마디로 학교와 교실 교육을 돕는 교육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육의 본질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철저한 지원행정이 필요하다. 실적 위주의 전시행정이나 책임회피성 행정으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바람직한 교육 발전 방향은?

-교육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온라인 원격수업과 홈스쿨링이 증가하고 있고, 교육의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미래교육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학교의 개념도 크게 바뀌어야 한다. 학교가 무한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그러나 다르게 성장하는 진로학습공간'으로 변화해야 하고, 학교에서 통하는 것이 사회에서도 통할 수 있는 학교, 학습주체로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발휘하고 자율성을 경험해 보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든 게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학교공동체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교사의 자율성에 근거한 교육과정이 다양한 수업을 만들고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화 분권화에 기반해서 교육 주체와 지역교육청 교육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공동의장 등 사회활동 활발한데 환경에 관심이 많게 된 계기는?

-솔직히 오래전부터 환경운동을 하던 선배님들의 말을 그렇게 크게 듣지 못했다. 지금 생각하니 참 부끄럽기 그지없다. 생각해 보면 학교에서 봉사활동과 연계한 환경보호활동을 제한적으로 하다가 무등산사랑 환경대학을 알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무등산은 우리에게 산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존재다. 무등산보호단체활동을 하면서 환경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현재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의 심각성도 여실히 알게 되었다. 지금 우리에게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에 환경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생활 속에서 강력한 실천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환경이나 기후위기와 관련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교육철학은?

-교육은 인간을 가꾸는 종합서비스라고 생각한다. 이제 교육은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넘어 감동의 수준으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가장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한다.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첫째, 안전한 배움 환경 속에서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건강하고 따뜻한 인간교육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 교육, 우리 지역 유·무형의 자산을 활용한 현장 체험 교육,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 생활교육을 강화해 한 명 한 명의 학생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교육이 돼야 한다. 인성도 실력이니까.

둘째, 스스로 익히며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배움 중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1학생 1동아리 활동 지원과 학습 부진 학생 학력 향상 지원 등 학생 개인의 맞춤형 교육 지원에도 주력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창의적 체험 중심 맞춤형 진로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각자의 꿈과 적성을 키우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이나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해 우리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임채만 기자

광주매일TV kjdaily.com (영상뉴스)

예술혼 가득 '정율성 음악축제' 막 오른다

23일부터 1주일간 양림동 등 온·오프라인 개최

중국 3대 음악가이자 광주 출신 정율성 선생의 예술 혼을 담은 '2021 정율성 음악 축제'가 본격 닻을 올린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남구 양림동 오웬기념각, 우일선 선교사 사택 앞, 빛고을시민문화관, 이이남 스튜디오에서 '정율성 음악축제'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음악 축제는 두 파트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온라인 행사는 23-24일, 오프라인은 27-29일까지 열린다.

비대면 온라인 행사인 '양림프로젝트 한국의 몽마르뜨; 양림의 鄭' 공연은 정율성 선생이 유년 시절을 보낸 양림동에서 금관 앙상블, 퓨전국악, 트로트 공연이 선보인다.

27일부턴 관현악의 밤, 실내악의 밤, 신인음악회를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과 광주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관람할 수 있다.

28일은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수석연주자로 구성된 클래식 공연, 29일에는 광주 관내 음악대학 재학생들로 구성된 신진 음악인들이 '2021 정율성 음악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광주 출신의 정율성 선생을 기리는 음악제에서 가을밤 정취를 흠뻑 느끼시길 바란다"며 "음악제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힐링의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11월11일부터 18일까지는 이이남 스튜디오에서 양림 프로젝트 전시가 열린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가 낳은 세계적인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작가와 연계한 '정율성, 미디어아트를 만나다' 전시와 함께 개막공연으로 광주시립발레단, V.bell mago(오승종)과 미디어아트 콜라보가 예정돼 있다.

/이종행 기자

전남도립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공모

전남 미술사 정립·독창적 현대미술 작품 20-22일 접수

전남도립미술관은 19일 "전남 미술사를 정립하고 독창적인 현대미술을 선도하기 위해 2021년 제2차 소장작품 구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진행한 상반기 구입 공모에선 코로나19로 위축된 미술 시장에서 작품 활동이 어려운 청년 작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남지역 청년 작가 작품을 우대했다.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신청 자격을 완화해 작가, 작품 소장자, 화랑 등 작품을 소장 중인 예술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전남지역 미술계를 이끌 공립미술관으로서 국제적인 현대미술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현대 미술사 흐름을 소개하는데 주안점을 둬 이뤄진다.

주요 구입 대상은 '전남 미술사 정립 및 전남도립미술관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작품'과 '현대 미술사를 대표하는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작가의 작품'이다.

이는 미술관 소장품을 다양화하고 해당 시기 및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도민에게 수준 높은 전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접수 기간은 20일부터 22일까지다. 등기우편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다.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신청 기간 외 접수는 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립미술관 누리집(https://artmuseum.jeonnam.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재정 기자

광주도시공사 '사랑의 실버카' 55대 전달

광주도시공사는 19일 공사에서 관리 중인 임대아파트 종합사회복지관 6곳을 방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보행 보조기인 '사랑의 실버카' 55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

시도시공사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실버카' 50대 가량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무상 보급하고 있다.

이날 '사랑의 실버카' 전달식엔 황현택 시의원(서구4)이 참석했다.

정민곤 시도시공사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실버카를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